

Longitudinal Model Verification of Life Satisfaction of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Jae-Nam Kim*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is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with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s, growth backgrounds, values, and lifestyl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KOWEPS). The research data is from the KOWEPS 1st year(2006) to 14th year(2019), out of 27,301 people, who conducted life satisfaction from the latest 12th to 14th year, and the responses were properly answered data from 3 years of 2,492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of both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the more the life satisfaction slowly increases at a slower rate as time passes. In addition,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and rate of change, the initial value of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as the living satisfaction increased in both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but in the case of Generation X, the higher living satisfaction, the lower the rate of change in life satisfaction for 3 years by .327, in the case of Generation Y, the rate of change in life satisfaction was not affected.

Finally, in the model of this study, a partial mediation of health condition was established between living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endency. Living satisfaction was analyzed to have a direc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at the same time indirectly with a health condition as a parameter.

▶ **Key words:**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Living Satisfaction, Health Condition, Life 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요 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 성장배경,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등이 서로 다른 X세대와 Y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연구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2006년)부터 14차년도(2019년) 까지 이루어진 27,301명 중에서 삶의 만족도를 실시한 최근 12차년도부터 14차년도까지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진 2,492명의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X세대와 Y세대 모두 삶의 만족도가 높은 세대일수록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느린 속도로 삶의 만족도가 천천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X세대와 Y세대 모두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높게 나타났으나, X세대의 경우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3년 동안 삶의 만족도 변화율은 .327이 낮아지고, Y세대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경향성 사이에서 건강 상태의 부분 매개가 성립하여 생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건강 상태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X세대와 Y세대, 생활 만족도, 건강 상태, 삶의 만족도, 종단적 분석

-
- First Author: Jae-Nam Kim, Corresponding Author: Jae-Nam Kim
 - Jae-Nam Kim (jnkim@kwu.ac.k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20. 10. 12, Revised: 2020. 11. 02, Accepted: 2020. 11. 02.

I. Introduction

호모 마키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집중되고 증대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2년에 한 번씩 20개 이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 이는 삶의 만족도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전 인류의 관심사임을 알 수 있게 한다[2].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일부 소수를 위해 다수의 국민이 희생하는 불행한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사는 행복한 사회이어야 한다[3].

삶의 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특정 세대 중심 또는 주관적 행복감 또는 생활 만족도의 요인으로 고려되는 특정한 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X세대와 Y세대 사회적 위치의 여러 가지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삶의 과정에서 세대별 서로 다른 배경임을 인정하여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심층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 12차년도(2017년)부터 14차년도(2019년)까지 조사가 완료된 3개년도 자료를 X세대와 Y세대별 각 개인의 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최적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X세대와 Y세대들의 삶의 만족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각 변인들에 대한 변화 형태를 추정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의 관련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관련 변인들의 잠재성장모형을 최적으로 구축하고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영향까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각 세대가 추구하는 삶과 주관적 행복감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X세대와 Y세대의 생활 만족도 문제는 생산연령 감소 시대에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다 세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의 서로 다른 경험이 시대에 따른 원인의 차이임을 관련 분야에서 활용되어지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X세대와 Y세대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변화양상을 규명함으로써 그들의 성장배경과 환경을 이해하여 삶의 만족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제도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삶의 환경을 모색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를 진행 하였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Generation X and Y

세대 구분은 국가와 연구자에 따라 연령 구분을 달리 하고 있고 그 기준과 정확한 경계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X세대와 Y세대의 구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X세대(신세대)는 1975년~1984년에 출생한 자(2020년 기준 45세~36세), Y세대(밀레니얼세대)는 1985년~1996년에 출생한 자(2020년 기준 35세~26세)로 한다. 본 연구에서 구분하고자 하는 X세대와 Y세대의 특징[4]을 보면 X세대는 학력 고사가 아닌 수능으로 대학을 진학한 세대이다. 1997년도 IMF 외환위기와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학 진학이 인생 성공이다"라는 형식이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 조직 문화에서 인정이나 관행이 통용되던 것과는 달리 원칙과 원리가 더 중시된 세대이므로 당연히 관행적인 조직 문화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Y세대는 국민학교가 아닌 초등학교를 졸업한 세대이면서 부모인 베이비부머 1세대들의 열기로 대학 진학률이 높은 세대이다. IT에 능통하고 청소년기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바일과 SNS 사용에 매우 능숙하며 일자리 질 저하, 고용 감소 등 악조건 하에서 사회에 진출한 세대이다. 우리는 모든 세대가 개인의 위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원을 인식해야 한다.

2. Living Satisfaction

생활 만족도란 자기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하여 흡족한 상태를 의미하고, 주관적 행복, 주관적 후생, 삶의 질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생활 만족도 개념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나 생각은 없으며 학자마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생활 만족도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면, 주관적 또는 객관적인 삶의 질 모두를 포함하는 '삶의 질'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5]. 생활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마다 본인의 관심 분야와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생활 만족에 대한 영역을 구분하고, 그 영역에서 관련 있는 변인들을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건강 상태나 경제적 요인 등으로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었지만, 생태계 환경이 변화되고 욕구가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생활 만족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므로 한국복지패널 유형의 건강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가족의 수입 만족도, 직업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를 생활 만족도로 정의한다.

3.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아내고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면서 낙관적인 감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6, 7]. 또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다양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 정도의 인지적 평가 및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이라고 하였다[8, 9].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0]. 첫째, 외적 기준과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소득이나 교육 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기준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둘째,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개념이다. 셋째는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의 심리상태가 우세한 정서적 측면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삶의 만족도 선행연구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고, 그 이외의 세대들에 대한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배경과 출생 시점으로 다른 X세대와 Y세대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종단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Target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배경, 출생시점, 성장배경, 문화, 가치관, 행동양식, 라이프 스타일 등이 서로 다른 X세대와 Y세대의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X세대와 Y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2006년)에서 14차년도(2019년)까지 이루어진 27,301명 중에서 삶의 만족도를 실시한 최근 12차년도부터 14차년도까지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진 2,492명의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 2,492명 중 X세대가 1,429명, Y세대가 1,063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은 1,083명(X세대 662명, Y세대

421명), 여성은 1,409명(X세대 767명, Y세대 642명)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수준으로는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이 1,777명으로 연구대상자의 71.3%를 차지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Target

Division		X-Gen.		Y-Gen.		Total	
		F	%	F	%	F	%
Gender	Male	662	46.3	421	39.6	1083	43.5
	Female	767	53.7	642	60.4	1409	56.5
	Total	1429	100	1063	100	2492	100
Education Level	Ele.	1	.1	1	.1	2	.1
	Mid.	18	1.3	5	.5	23	.9
	Hig.	402	28.1	168	15.8	570	22.9
	College	394	27.6	317	29.8	711	28.5
	Univ.	533	37.3	533	50.1	1066	42.8
	Master	75	5.2	32	3.0	107	4.3
	Doctor	6	.4	7	.7	13	.5
	Total	1429	100	1063	100	2492	100

2. Measurement of Main Variables

2.1 Living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건강, 주거 환경, 가족의 수입, 직업, 가족 관계,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를 각각 1=매우 불만족에서부터 5=매우만족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거 환경만족도의 경우에는 가구원 개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족 관계에서 가구원 이외의 경우 직계혈족 1촌 이내만 포함하여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직업 만족도에서는 무직, 전업주부 등도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7개 항목과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값을 합하여 평균으로 반영하였다. 시점별 신뢰도(Cronbach's α)는 12차 시점 .805, 13차 시점 .811, 14차 시점 .809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건강상태는 건강 상태 전반에 대한 정도를 5점 척도(1=매우 건강하다 부터 5=건강이 매우 안 좋다 까지)로 이루어지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12차 년도부터 14차 년도 까지 같은 내용의 척도로 이루어진 내용이다.

2.2 Life Satisfaction

본 연구에서 이용한 삶의 만족도는 '캔트릴 사다리' 조사를 통해 작성 되었다. 캔트릴 사다리는 맨 아래(0)에서 맨 위(10)까지 숫자가 부여된 사다리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실시한 삶의 사다리 점수가 1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가 5점 만점으로 이루어져서 삶의 사다리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맨 위(10)는 삶에서 최선의 상태

를 나타내고 맨 아래(0)는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낸다. '캔트릴 사다리'는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11단계(10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로 나누어 0점~10점 척도를 활용한다. 이 사다리를 '인생 사다리' (ladder of life)라고 한다. 1965년에 이 사다리로 질문을 던진 캔트릴 사회심리학자 이름을 따 '캔트릴의 사다리'라고도 불리었다.

3.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배경과 출생 시점이 서로 다른 X세대와 Y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만족도 대하여 다음 Fig.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부터 14차 년도까지 조사가 완료된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X세대와 Y세대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최저 주거기준 사항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Fig. 1에 제시한 연구모형으로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부터 14차 년도까지 삶의 만족도 조사가 완료된 3개년도 자료를 X세대와 Y세대의 생활 만족도에 의한 삶의 질에 대한 상관관계와 연구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차이를 추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존 연구들과 가장 큰 차이점과 특징은 선행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었던 사회적 지표의 변수들과는 달리 연구 대상자를 X세대와 Y세대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변인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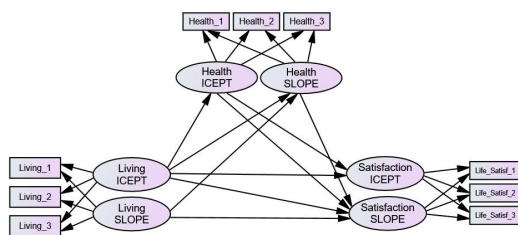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4. Data Analysis Method

X세대와 Y세대의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부터 14차 년도까지 삶의 만족도 조사가 완료된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각 변인들에 대한 변화 형태를 추정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의 관련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변인들의 잠재성장모형을 최적으로 구축하고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 후 관련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영향까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 통계 패키지 26.0/AMOS 2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으로 종단적인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내용에 따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관측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통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고 정규성 문제를 검증하였다. 둘째,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관측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였다. 셋째, 생활만족도가 건강상태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변인 별로 적절한 성장모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3차 시점의 평균변화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였다. 넷째,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형 적합도 검정을 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으로 종단적인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고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변인들의 잠재성장모형을 최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 후 관련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영향까지 분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 간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다.

IV. Research Result

1. Description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 내용은 본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개략적인 정보와 관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종단자료를 활용하므로 변수를 각 시점 별로 반복해서 측정할 경우에 변수들의 평균과 분산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와 시간효과가 있는지, 변수 간의 관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하지 등 횡단자료와는 구별되어지는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X세대의 주요변수들은 평균값이 유사하나 생활만족도는 14차 시점이 12차 시점에 비해 .009점 감소, 건강상태는 14차 시점이 12차 시점에 비해 .050점 감소, 삶의 만족도는 14차 시점이 12차 시점에 비해 .1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변수 모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초기치

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3개 변수의 시점별 왜도 절대 값은 건강상태 13차 시점이 1.102로 가장 높은 값인데 3미만이고, 침도의 절대 값은 건강상태 13차 값이 3.893으로 가장 높은 값이나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변수들이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Y세대의 주요변수들도 평균값이 유사하나 생활만족도는 14차 시점이 12차 시점에 비해 .024점 감소, 건강상태는 14차 시점이 12차 시점에 비해 .024점 감소, 삶의 만족도는 14차 시점이 12차 시점에 비해 .1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변수 모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초기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3개 변수의 시점별 왜도 절대 값은 건강상태 13차 시점이 1.123으로 가장 높은 값인데 3미만이고, 침도의 절대 값은 건강상태 13차 값이 4.603으로 가장 높은 값이나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변수들이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확인되었다. X세대와 Y세대의 3개 변수 평균값 모두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연구 모형에 포함된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의 모든 변수에 대한 차시 별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변수 모든 시점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 의미는 생활만족도가 좋아질수록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X세대의 경우 건강상태 14차 시점과 삶의 만족도 12차 시점 관계에서 .113으로 가장 작았고, 생활만족도 12차 시점과 삶의 만족도 12차 시점의 관계에서 .53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모든 변수에 대한 차시 별 변수 간 상관관계수가 .113~.534사이에 분포되어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Y세대의 경우 건강상태 12, 14차 시점과 삶의 만족도 13차 시점 관계에서 .082로 가장 작았고, 생활만족도 14차 시점과 삶의 만족도 14차 시점의 관계에서 .54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모든 변수에 대한 차시 별 변수 간 상관관계수가 .082~.546사이에 분포되어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X세대와 Y세대 모두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수가 낮게 나타났고, 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든 변수들이 .90 보다 높은 상관관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중 공선성에 대한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생활만족도가 건강상태를 매개로 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변인 별로 적절한 성장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3차 시점의 평균변화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Fig. 2에 제시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각각의 시점에서 측정된 변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의 모형이고, 선형변화모형은 각각의 시점에서 측정된 변수가 일관성 있게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다. 무변화 모형에서의 잠재변인은 초기치만 존재하고 변화율은 추정할 수가 없다. 선형변화 모형에서 2차 잠재변인은 초기치에서 각 시점의 1차 잠재변인을 회귀계수 1로 고정하고, 변화율에서 각 시점의 1차 잠재변인으로 가는 회귀계수는 측정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0, 1, 2로 고정 하도록 한다. 또한 2차 잠재요인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추정을 위해서 각 1차 잠재변수의 절편을 0으로 조정해야 한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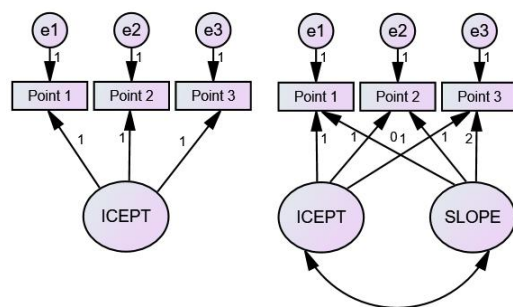


Fig. 2. No Change Model & Linear Change Model

3.1 Verification of Change Model by Variable

생활 만족도,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변인들의 평균변화 유형을 바탕으로 각 변인들에 대한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적용하여 변화모형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형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X세대의 경우 생활만족도 무변화 모형 적합도(TLI=.997, CFI=.969, RMSEA=.064)가 선형변화 모형 적합도(TLI=1.002, CFI=1.000, RMSEA=.000)보다 더 좋게 나타났고, 건강상태 무변화 모형 적합도(TLI=.970, CFI=.960, RMSEA=.038)가 선형변화 모형 적합도(TLI=.944, CFI=.981, RMSEA=.052)보다 더 좋게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 무변화 모형 적합도(TLI=.983, CFI=.977, RMSEA=.060)보다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TLI=.992, CFI=.997, RMSEA=.041)가 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2. Variation Model Fit of Variables (N=2,492)

X-Ge.	M	χ^2	df	TLI	CFI	R
Living	NC	27.198***	4	.997	.969	.064
	LC	.572	1	1.002	1.000	.000
Health	NC	12.344*	4	.970	.960	.038
	LC	4.854*	1	.944	.981	.052
Life	NC	24.642***	4	.983	.977	.060
	LC	3.447	1	.992	.997	.041

Y-Ge.	M	χ^2	df	TLI	CFI	R
Living	NC	16.832***	4	.985	.980	.055
	LC	.010	1	1.005	1.000	.000
Health	NC	10.318*	4	.971	.962	.039
	LC	.471	1	1.010	1.000	.000
Life	NC	32.775***	4	.947	.929	.082
	LC	.011	1	1.007	1.000	.000

*p<.05, **p<.01, ***p<.001
M: Model, NC: No Change,
LC: Linear Change, R: RMSEA

Y세대의 경우 생활만족도 무변화 모형 적합도 (TLI=.985, CFI=.980, RMSEA=.055)가 선형변화 모형 적합도(TLI=1.005, CFI=1.000, RMSEA=.000)보다 더 좋게 나타났고, 건강상태 무변화 모형 적합도(TLI=.971, CFI=.962, RMSEA=.039)가 선형변화 모형 적합도 (TLI=1.010, CFI=1.000, RMSEA=.000)보다 더 좋게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 무변화 모형 적합도 (TLI=.947, CFI=.929, RMSEA=.082)보다 선형변화 모형 적합도(TLI=1.007, CFI=1.000, RMSEA=.000)가 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X세대와 Y세대 모두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는 무변화 모형, 삶의 만족도는 선형변화 모형이 더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서 삶의 만족도를 제외한 변인들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 있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삶의 만족도의 선형변화 모형만을 적용하여 변인들의 변화 양상과 개인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기값과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X세대의 경우 삶의 만족도 초기값 평균은 3.416(p<.001)으로 나타났고, 12차 년도에서 14차 년도까지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율은 .032

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가 점점 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331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의미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X세대일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느린 속도로 삶의 만족도가 천천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 분산 초기값 .352(p<.001)과 변화율 .053(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Y세대의 경우 삶의 만족도 초기값 평균은 3.300(p<.001)으로 나타났고, 12차 년도에서 14차 년도까지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율은 .032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가 점점 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415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의미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Y세대일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느린 속도로 삶의 만족도가 천천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 분산 초기값 .352(p<.001)과 변화율 .088(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X세대와 Y세대 모두 삶의 만족도 분산 초기값과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Model Verification

각 변인별 적합한 변화모형을 확인한 것을 기반으로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생활만족도가 건강상태를 매개로 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가 건강상태를 완전히 매개하여 X세대와 Y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과 생활만족도가 건강상태를 매개하여 X세대와 Y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하여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χ^2 검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와 적합도(TLI, CFI, RMSEA)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3. Life Satisfaction Linear Change Model Estimation

Life Satisfaction	Change	Mean		Variance		Initial Value - Rate of Change Correlation
		Initial Value	Rate of Change	Initial Value	Rate of Change	
X-Generation	No	3.450***		.302***		-.331**
	Linear	3.416***	.032**	.352***	.053***	
Y-Generation	No	3.332***		.226***		-.415***
	Linear	3.300***	.032*	.302***	.088***	

Table 4. Goodness of Fit for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Division	Model	χ^2	df	TLI	CFI	RMSEA
X-Generation	Research Model	184.714***	21	.915	.950	.074
	Competition Model	307.328***	24	.871	.914	.091
Y-Generation	Research Model	166.447***	21	.888	.935	.081
	Competition Model	293.235***	24	.818	.879	.103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Table 4에서 보여준 것을 보면, 먼저 X세대의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적합도는 $\chi^2=184.714$, $df=21$, $TLI=.915$, $CFI=.950$, $RMSEA=.074$ 로 나타났으며,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적합도는 $\chi^2=307.328$, $df=24$, $TLI=.871$, $CFI=.914$, $RMSEA=.091$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Y세대의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적합도는 $\chi^2=166.447$, $df=21$, $TLI=.888$, $CFI=.935$, $RMSEA=.081$ 로 나타났으며,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적합도는 $\chi^2=293.235$, $df=24$, $TLI=.818$, $CFI=.879$, $RMSEA=.103$ 로 나타났다. χ^2 검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적합한 모형 검증결과 TLI, CFI, RMSEA 값을 비교해볼 때 X세대와 Y세대 모두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X세대와 Y세대의 모두 부분 매개모형이 완전 매개모형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어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3.3 Verification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본 연구에서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부분매개모형을 통해 X세대와 Y세대의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각각의 경로계수는 Fig 3, Fig 4와 같이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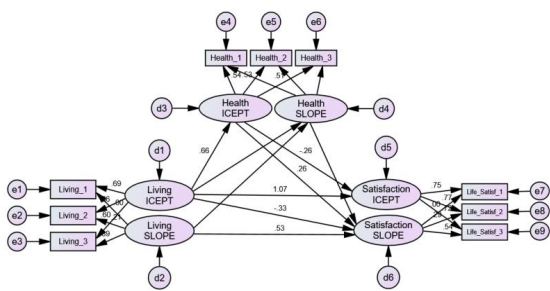


Fig. 3. Path Coefficient of Gen X Final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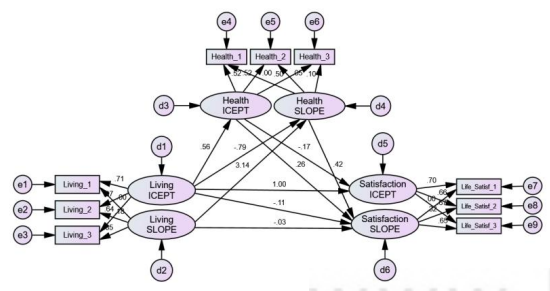


Fig. 4. Path Coefficient of Gen Y Final Model

Table 5에서 X세대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생활만족도 초기값은 건강상태 초기값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661$, $p<.001$), 건강상태 변화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의미는 생활만족도가 큰 X세대일수록 건강상태 초기값은 .661만큼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만족도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1.065$, $p<.001$),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beta=-.327$, $p<.05$)것으로 나타났다. 그 의미는 생활만족도가 큰 X세대일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1.065만큼 높게 나타났고,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3년 동안 삶의 만족도는 .327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상태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beta=-.257$, $p<.001$),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의미는 건강상태가 높은 X세대일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257만큼 낮게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Table 5에서 Y세대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생활만족도 초기값은 건강상태 초기값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558$, $p<.001$), 건강상태 변화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의미는 생활만족도가 큰 Y세대일수록 건강상태 초기값은 .558만큼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만족도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1.003$, $p<.001$),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의미는 생활만족도가 큰 Y세대일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1.003만큼 높게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상태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beta=-.167$, $p<.05$),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beta=.264$, $p<.05$)것으로 나타났다. 그 의미는 건강상태가 높은 Y세대일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264만큼 낮게 나타났고, 건강 정도가 높을수록 3년 동안의 삶의 질의 변화율은 .264만큼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Table 5.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Estimation

Path	X-Generation		Y-Generation	
	B	β	B	β
Living_ICEPT → Health_ICEPT	.721***	.661	.561***	.558
Living_ICEPT → Health_SLOPE	-.078	.000	-.079	-.791
Living_ICEPT → Satisfaction_ICEPT	2.056***	1.065	1.676***	1.003
Living_ICEPT → Satisfaction_SLOPE	-.236*	-.327	-.089	-.109
Living_SLOPE → Health_SLOPE	1.301***	.000	1.151*	3.142
Living_SLOPE → Satisfaction_SLOPE	1.180*	.530	-.084	-.028
Health_ICEPT → Satisfaction_ICEPT	-.455***	-.257	-.278*	-.167
Health_ICEPT → Satisfaction_SLOPE	.170	.257	.214*	.264
Health_SLOPE → Satisfaction_SLOPE	1.087**	.000	3.392	.415

B: Non-Standardization Factor, β : Standardization Factor

4. Mediating Effect of Health Status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 경로 계수를 통해 변수들 간의 효과 검증을 하였다. 연구모형 변수 간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산출하였다.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모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건강상태가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하여 매개효과를 갖도록 경로를 설정하였다. X세대에 대한 경로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 경향성에 대한 직접효과(1.065, $p < .01$)와 건강상태를 매개 변수로 한 간접효과(-.170, $p < .01$), 그리고 총 효과(.895, $p < .01$)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를 경향성에 대한 직접효과(-.327, $p < .01$)와 건강상태를 매개 변수로 한 간접효과(.052, $p < .05$), 그리고 총 효과(-.275, $p < .01$)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Y세대에 대한 경로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 경향성에 대한 직접효과(1.003, $p < .01$)와 건강상태를 매개 변수로 한 간접효과(-.093, $p < .01$), 그리고 총 효과(.910, $p < .01$)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 경향성에 대한 직접효과(-.109, $p < .01$)와 총 효과(-.290,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매개 변수로 한 간접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모형은 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경향성 사이에서 건강상태의 부분매개가 성립하여 잠재변수 생활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건강상태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배경, 출생시점, 성장배경, 문화, 가치관, 행동양식, 라이프 스타일 등이 서로 다른 X세대와 Y세대의 생활 만족도와 건강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X세대와 Y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의 삶의 만족도를 실시한 최근 12차 년도부터 14차 년도까지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진 2,492명의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변화 형태를 추정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의 관련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측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통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고 정규성 문제를 검증한 결과 X세대와 Y세대가 동일하게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변수가 큰 변화 없이 초기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3개 변수의 시점별 왜도 절대 값은 가장 큰 값이 3미만이고, 첨도의 절대 값은 가장 큰 값이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변수들이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확인되었다. 둘째, 관측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X세대와 Y세대 모두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수가 낮게 나타났고, 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든 변수들이 .90 보다 높은 상관관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중 공선성에 대한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생활만족도가 건강 상태를 매개로 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변인 별로 적합한 성장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3차 시점의 평균변화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선형변화 모형이 만족할만한 수준인 삶의 만족도의 선형변화 모형만을 적용하여 변인의 변화 양상과 개인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의 초기 값과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X세대와 Y세대 모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느린 속도로 삶의 만족도가 천천히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 분산 초기 값과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초기 값과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형적합도 검정을 하여 X세대와 Y세대의 모두 부분 매개모형이 완전 매개모형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어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종단적 자료를 분석하고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변인들의 잠재성장모형을 최적으로 구축하며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 후 관련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영향까지 분석하였다. 생활 만족도가 큰 X세대일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1.065만큼 높게 나타났고,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3년 동안 삶의 만족도는 .327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상태가 높은 X세대일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257만큼 낮게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 만족도가 큰 Y세대일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1.065만큼 높게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상태가 높은 Y세대일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264만큼 낮게 나타났고, 건강 정도가 높을수록 3년 동안의 삶의 질의 변화율은 .264만큼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잠재 변수들 간의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다. 연구모형은 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경향성 사이에서 건강 상태의 부분 매개가 성립하여 잠재변수 생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건강 상태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의 미래사회에서 세대별 생활 만족도는 생산연령 감소 시대에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다 세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변화양상을 규명함으로써 그들의 성장 배경과 환경을 이해하여 출생 코호트에 따라 삶의 만족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제도와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생활환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ACKNOWLEDGEM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2020(KWUI20-학석002).

REFERENCES

- [1] OECD, <http://www.oecd.org/newsroom/oecd-updates-its-better-life-index.htm>, 2015.
- [2] Jskno, "The effect of the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s of the elderly on the satisfaction of life", Dep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2018.
- [3] Ymoon, "A Panel Analysi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Focusing on Latent Growth Model", *Industrial Labor Research* Vol. 20 No. 2, 187~218, 2014.
- [4] <https://news.joins.com/article/23640601>
- [5] Ymoon, "A Panel Analysi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Focusing on Latent Growth Model", *Industrial Labor Research* Vol. 20 No. 2, 187~218, 2014.
- [6] Diener, E., & Diener, M.,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1995.
- [7] Neugarten, B. L., Havghurt, R. J., & Tobin, S. S.,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1961.
- [8] Huebner, E. S.,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3-33, 2004.
- [9] Fujita, F., & Diener, E.,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2005.
- [10]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3, 542-575, 1984.
- [11] <https://www.koweps.re.kr:442/main.do>, 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 2020.
- [12] Jhkim, M, Shhong, "Writing a Thesis wi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communicationbooks, 2009.

Authors



Jae-Nam Kim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Computer Science and Statistics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84, 1989 and 2006, respectively.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in 1992.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Welfare Information System, Welfare Statistics.